



태국 파야오 신학교에서 61호(2019/09/02)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후 5: 1-2)

싸왓디 카! 평안하신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기철입니다. 비로 인해 더위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들이 더 푸르르게 변하기 때문에 눈과 몸이 함께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게다가 이번엔 비가 잘 오지 않아 얼마 전 심어 놓은 모가 딱딱해진 논에서 살아 남을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드디어 단비가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적셔 주고 있어 한결 더 고맙고 반가운 비입니다. 3일이나 모를 심느라 함께 수고한 저희들의 열매를 4개월 후(11월 수확)에는 거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는 이상하리 만큼이나 자주 장례식을 다녀 왔습니다. 저희들은 신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호흡하다 보니 졸업 후 이들로 부터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에 참여할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신랑 신부 모두가 제자일 경우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축의금을 준비하여 참여해 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장례식을 자주 다녀 온건 11년만에 처음이네요.

30-40대의 젊은 나이에 1명은 오토바이 사고로, 1명은 심장마비, 그리고 또 1명은 오랜 암투병 끝에... 3명의 졸업생들의 연이은 초상으로 큰 슬픔의 현장을 다녀왔고 또 한분은 저의 학교 설립자이셨던 영국인 선교사님의 추모식이 저의 학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저 보다 젊은 제자들을 질병과 사고로 먼저 떠나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든 내내, 장례식에서 만났던 그들 자녀들과 배우자들의 눈물과, 적당한 위로의 말을 찾을수 없어 그냥 안고 한참을 같이 울수 밖에 없었던 저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그런 이별이 새삼 저 자신도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귀한 교훈이 되었고, 위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저도 조만간 지금 살고 있는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거라는 경고를 듣게 되더군요. 제게 생명이 있음은 아직 사명이 있음인줄 알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금의 장막이 낡아져도(병들어져도) 영원한 집을 소망하려고 합니다.

♥ John David 선교사의 추모식

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54년전 일개 묘지에 불과했던 이 땅에 “기독교 훈련 센터” 라는 이름으로 저의 신학교를 개척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 방콕에만 2-3 개의 소규모 성경 학교가 존재했기에, 북부 태국 지역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성경학교의 비전을 품으셨고, 그 후 오토바이를 타고 북부 태국을 중횡무진 돌아다니시면서 적합한 장소를 기도로 물색하시던 중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당시 묘지여서 모든 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 땅에서 파야오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무덤가를 돌아 다니시며 기도하시는 중에 이 곳이다라는 확신이 드셨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땅이었기에 헐값에 매매를 할수 있었고 4명의 학생을 첫번째 1기 학생으로 파야오 신학교를 시작해 현재 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 후 저의 학교로 인해 태국 북부 지역의 복음화가 가속화 되어졌고 이들의 영적인 리더들을 배출하였고, 현재 복음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 곳 북부 태국입니다. 존 선교사는 70 세에 은퇴하시고

고향인 영국으로 가셨는데, 만 90 세를 일기로 지난 달 소천하셨습니다.

그 분의 소식을 전해 들은 초기 기수 졸업생들의 제안으로 우리 학교에서 추모예배를 드리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지난 8월 3일 약 300 명의 졸업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대부분 60 세가 넘는 졸업생들(그 분의 생전에 제자이셨던 분들) 이셔서 제겐 생소한 분들이었지만, 30-40 년 전의 은사를 찾아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들을 보며 저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도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오랜만에 돌아온 모교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들 사이에 대화의 꽃이 피는 중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곳이 나의 영적 고향이고 중생한 장소라고 앞다투어 고백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고, 이 모임을 계기로 내년 55주년 동창회를 개최하자고 결정이 되어 졸업생들이 다시 한번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학교 모내기



기도회 날



티나콘



존 선교사 추모식

♥ 정기 기도회 날

저희들은 매학기 마다 1박 2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부터 월요일 밤늦게까지 진행됩니다. 밤 7시부터 자정 넘게까지 찬양, 말씀 중보기도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도 학년별, 각 부족별 기도 모임 등 학기마다 있는 행사입니다만,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의 학교에 단비처럼 내리워져서 정말 감사했었고, 저의 부부에게도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티나콘”의 우울증

2학년 학생인 그는 우리학교에 오기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은 적도 있고 약 처방도 받아서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온 학생입니다. 이 형제가 얼마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제 중인 자매와의 말다툼으로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학교에서 부엌칼로 자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룸메이트들과 형제들이 놀란 중에도 잘 대처를 해 주어 안정을 시키고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번 학기 말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티나콘이 주님만이 주실수 있는 참 평강을 체험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장은 4학년 형제들이 특별한 케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과거를 끊어낼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학교 안에 영적인 쇄신이 있어나서 이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티나콘’ 이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림으로 치유될수 있도록
- 소자본 사역을 하고 계시는 3분의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역교회와 공동체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현지연락처 : 93syria@daum.net 66-817248202 (Mobile)

Phayao Bible Seminary, Meuang, Phayao 56000, Thailand / 국민은행 852502-04-007477 (서정실)